



신선한 잠재력을 가진 기획자,

김세희(金世希)

Kim Se Hee

1995.08.04

ADDRESS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PHONE 010.2760.6483

EMAIL sehee6483@naver.com

PORTFOLIO <http://seheekim.wixsite.com/portfolio>



EDUCATION BACKGROUND

- 동안 고등학교 졸업(~2014.02)
- 계원예술대학교 디지털미디어 디자인과 입학(2015.02)
- 계원예술대학교 디지털 미디어 디자인과 기획전공 졸업 예정(~2017.02)

EXPERIENCE

- 디지털미디어디자인과 홍보동아리'KOC'활동
(2016.05.20~)
(블로그 포스팅 기획 및 업로드/http://blog.naver.com/kaywon_dmd)
- 스마트홈 구축 사례조사 팀 활동
(2015.08.02~08.20)
(웅진 스마트홈 공모전 참여 및 사례조사)
- 움니피앤씨 회사와 함께 SNS페이지를 이용한 바이럴 마케팅 참여
(2016.09~2016.12)

AWARD

- 2016커뮤니케이션 디자인 공모전 입선 수상
(어린이 대상 미디어월 분리수거 게임)

SKILL

POWER POINT	
EXCEL	
HANGUL	
ILLUSTRATION	
PHOTOSHOP	

신선한 잠재력을 가진 기획자,

김세희(金世希)

친구들 사이에서의 나는 중재자,상담사

어릴 적부터 저는 왜인지 친구들 사이에서 중재자, 혹은 상담사로 통했습니다.

친구들 끼리 다투거나 토라졌을 때, 저는 그 사이에서 각자의 입장을 대신 전해 주는 역할을 맡았었는데, 어느 한 친구의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최대한 그 친구가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차분히 좋은 말로 설명했습니다. 또한 친구의 고민을 듣고 그 친구의 입장에서 충분히 생각한 후에 상담을 해주기 때문에, 저의 친구들은 고민이 생기면 저를 먼저 찾습니다. 저의 이런 성격은 사람간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한 기획업무에서, 큰 장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뿌셔뿌셔 마케팅 기획

1학년 과목중 프로젝트의 이해 과목에서 과자 브랜드를 선택하여 브랜드 이미지를 확립 하여 구매자를 늘리는 팀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진행하였습니다. 이전의 사이니 CM 송의 이미지가 강했던 뿌셔뿌셔의 이미지를 스트레스를 풀기위해 부수는 과자라는 이미지로 전환시키기 위해 각 신체 부위로 뿌셔뿌셔를 부쉬, 성공할 시 상품을 제공하는 오프라인 프로모션을 기획하여 진행하였고, 'OOO뿌셔뿌셔'라는 댓글 이벤트 온라인 프로모션을 진행하였습니다.

기획 초반 스트레스를 풀어준다는 이미지 확립에만 집중하여, 소비자가 재미있게 참여 할 수 있는 프로모션을 기획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온몸으로 뿌셔뿌셔'라는 기존의 CM송 가사에 기안하여 각 신체를 사용할 수 있는 게임을 기획하여 부순다는 이미지를 주는 프로모션을 기획할 수 있었습니다.

홍보 동아리 참여/서로간 입장전달의 방법

2학년 여름방학부터, 2학기까지 계원예술대학교 디지털미디어 디자인 과를 홍보하는 공식 동아리 'KOC' 활동을 했습니다. 저는 동아리내의 기획팀에서 활동하게 되었는데, 업로드 콘텐츠를 기획하고, 일정을 잡고, 다른 팀들과 의견을 조율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습니다. 제일 기억에 남는 활동은 학과 홍보 블로그 첫 콘텐츠 기획이었는데, 동아리 활동 초기이다 보니, 디자인적 요소를 위한 데이터가 부족했습니다. 디자인팀 에게 할 일이 많아져 일 처리 속도가 느렸고, 더 이상 업로드 날짜를 늦출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평소 남들의 기분이 틀어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맞춰주길 좋아하는 저 로써는 디자인팀 에게 더 빨리 하라고 말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시안만 해서 부담 갖지 말고 대충 보내주세요" 라며 디자인팀 과의 감정적 마찰이 없는 데에만 신경을 썼고, 결국 첫 콘텐츠 업로드일이 며칠 더 미뤄지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경험을 통해 협력을 하는 업무에서는 서로간의 감정을 위한 배려도 물론 중요하지만, 각자간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야 하는 때도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신선한 우유같은 기획자

저는 마지막 기억이 있을 적부터, 우유를 곧잘 먹었습니다. 물 대신 우유, 밥 대신 우유를 마실 정도로 우유를 달고 살았고, 그 때문인지는 몰라도 키가 쑥쑥 자라 170cm로 큰 키를 갖고 있습니다.

저에게 큰 키를 선물해준 우유와 저는 닮은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우유는, 치즈, 요거트, 버터 등 다양하게 형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 강한 재료입니다. 사소한 경험에서도 배울 점을 찾아 배우는 저도 발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음식을 만들 때, 서로 어울리지 않는 재료도 우유에 재워 놓으면 각자 특유의 냄새 등을 지우고, 서로 어울리게 됩니다. 서로 상반된 의견에 다투었던 두 친구를 다시 어울리게 만들었던 저의 경험처럼, 저는 기획자로서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유는 모든 포유류 들이 태어나자 마자 마시는 대체 불가능한 기초공사 영양소입니다. 저 또한 대체할 수 없는 유일무이한 기획자가 되고 싶습니다.